

## 일부 도시지역 부인의 장기 피임실시에 관한 실태조사

공중보건잡지, vol. 10, No. 1, pp. 17~26, 1973.

이 봉 우

가족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1967년 68년 69년 3년간에 걸쳐 강원도 원주시 보건소에 등록된 가족계획 피임실시자 2,083명중 등록일로부터 2년간 피임방법을 계속 사용하여 온 764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실태를 등록상담기록부를 통하여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1967년에서 1969년까지 가족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된 부인의 63.9%가 1년내에 퇴락하였으며 19.7%가 2년이상 계속 등록하고 있었다.
2. 자의로 보건소를 방문하고 등록한 부인은 지도원이 부락현지에서 등록시킨 부인들 보다 장기피임을 실시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3. 연차적으로 30세 미만의 부인들의 장기피임실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40세 이상 부인의 장기피임실시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4. 고졸학력이하의 부인에서는 학력이 낮은 부인일수록 장기피임 실시율이 높았으며 대졸학력 소지부인에서는 중고졸 부인군보다 장기피임 실시율이 높았다.
5. 연도별로 점차 현존여자수가 적은 부인들의 장기피임실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6. 등록이전에 피임방법을 사용한 경험이 없었던 부인이 피임방법의 경험이 있었던 부인에 비해 장기피임을 실시하는 율이 높았다.
7. 등록이전에 인공유산의 경험이 없는 부인이 인공유산의 경험이 있는 부인에 비해 장기피임을 실시하는 율이 높았다.

## 부산 송도지역 주민의 모자보건에 관한 실태조사

중앙의학 25권 4호, 1973.

조 성 희

부산 복음간호학교 부설 모자보건 상담소의 사업대상이 되는 송도 지역에 거주하는 유배우가임 여성 290명을 대상으로 모자보건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임신, 임신손모, 출생경험 :

( a ) 20~24세에 결혼한 부인은 64.8% , 21~24세에 초산한 부인은 42.7% , 결혼기간 10년 미만은 62.8% 였다.

( b ) 부인의 평균 임신횟수는 3, 6회이고, 1~5회 임신경험율이 82.8% 로서 대부분이었으며, 평균 출생수는 2, 5명, 1~3명 출생경험이 76.2% 이었다. 임신 및 출생경험 횟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상승하고 있다.

( c ) 임신손모(단, 태아 사망) : 100임신당 309였고, 정상 출생율은 691이었다. 임신손모의 내용은 인공유산205, 자연유산71, 사산이 33이었다.

( d ) 현재 임신율은 13.5% 이었다.

2) 산전관리 :

( a ) 임신중 한 번이라도 산전진찰을 받은 율은 49.7% 였고, 교육 수준과 비례하였다.

( b ) 임신 중 부작용 경험율은 72.4% 이었다. 부작용을 느낀 부인 중 89.5% 는 분만하면 낫겠지 하고 그냥 두었다고 한다.

3) 분만환경 및 산후관리 :

( a ) 출산 경험이 있는 290명에 대한 최종아의 분만중 병원이나 조산원에서의 분만이 39.6% , 가정분만이 60.4% 이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병원분만이 많았고 연령별 분포는 25~34세 군은 병원 분만이 82.3% 이었다.

( b ) 가정 분만 175예 중 시멘트 포대와 비닐을 깐 경우가 합해서 57.8% 이었고 아무 것도 깔지 아니한 경우도 17.1% 나 있었다.

( c ) 제대절단 용구와 소독 : 가정 분만 175예 중 93.1% 가 가위를 사용했다. 소독해서 사용한 예는 25.7% 였다.

( d ) 분만 개조인 : 의사나 조산원 등의 의료인에 의한 분만이 52.8% , 비의료인에 의한 분만이 47.2% 인데 이 중 단독 분만도 7.2% 나 있었다.

( e ) 산후 휴식기간 : 산후 1달 혹은 1달이상 휴식한 예가 13.4% 였고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길어지고 있다.

( f ) 산후진찰 : 산후 진찰을 받은 율은 23.4% 이었고 교육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후 진찰을 받은 율이 높아졌다.

( g ) 산후 공중 목욕탕 이용 : 산후 공중 목욕탕 이용은 4주 후가 43.1% 이었고 8주 후는 2.1% 이었다.

4) 아동보건 :

(a) 수유 : 최종아의 이유 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이 27.2%로 제일 많았다.

(b) 예방접종 종류에 대한 지식과 실천 : 어린이 예방접종 6가지를 모두 알고 있는 부인은 4.5%이었으며, 85.5%의 부인은 1가지 이상 알고 있었다. 1가지 이상 실시한 경우는 84.8%이었고 교육 정도별로는 유의할 만한 차이는 없었다.

5) 가족계획 :

(a) 현존 자녀수는 평균 2.48명이었다.

(b) 가족계획 찬성율은 87.6%이었고 가족계획 실천율은 25.2%이었다.

(c) 분만후 피임 시기는 월경이 있을 때부터가 37.4%로 가장 많았다.

(d) 분만후 피임하지 않고 있다가 임신된 경험이 있는 부인이 35.2%이었다.

6) 모자 보건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

대상 부인의 66.6%는 임신 분만 육아법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필요성을 느끼는 율도 높았다.

## 강원도 농어촌 주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대한간호, Vol. 12, No. 6, pp.77~84, 1973.

### 최 대 옥

본 조사로서 도시 농어촌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와 도시 농어촌의 건강에 대한 비교 연구로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찾아내어 가급적 해결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며 최종의 목적은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국가발전에 밑 받침이 될 수 있는 건강한 국민을 만드는데 있다고 본다.

#### 1) 조사지역의 일반적 특성

(1) 조사지역인 강릉시와 명주군 중에서 강릉시는 시내에 속하는 7개 동을 도시로 정하고 해변가에 인접된 3개 동을 어촌으로 정하였고 명주군 중에서는 2개 면을 선택해 각각 100명으로 전체 300명의 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기일은 73년 6월 5일~30일 까지고 25일을 조사 기일로 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경제상태는 상이 3% 중이 72%, 하가 25%로 거의가 중 정도의